

축산업계

소식

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3. 축산물공판장과 가축시장의 육성 및 지도·감독 4.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조절 수매·방출 및 가격안정정책 5. 가축의 수출입관련 업무 6. 육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원모피가공업의 육성·지도업무를 관장한다.

—축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축산경영과장 이인형—

한편 개편된 축산물유통과장에는 김경남 전 대가축과장이, 축산경영과장에는 이인형 전 중소기업과장이 발령되었다. 또한 축산물유통과 수급1계장에 권기석, 수급2계장 구능완, 유통계장 박중근, 지도계장 김의호씨가, 축산경영과 경영계장 최 한, 계장계장 정진국, 낙농계장 김남철 씨가 각각 발령되었다.

농림수산부장관에 강보성씨 취임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농림수산부 직제 개편

—기능위주의 축산물유통과, 축산경영과로—

정부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입개방 등 국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의 조직을 개편·조정하였다. 농림수산부 축산국은 축종별 축산행정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가축과와 중소기업과를 축산경영과와 축산물유통과로 개편하였다.

축산경영과는 1. 가축의 개량증식 2. 가축의 능력검정 및 종축관리 3. 축산업의 육성 4. 축산관측 업무 5. 인공수정생산 및 수정란의 이식 6. 축산물생산비의 조사·분석 7. 축산물의 자조금제도 운영 8. 축산경영지도 및 단체관리 9. 우수수급 및 가격관리 10. 원유생산 및 집유지도 11. 육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분장하고, 축산물유통과는 1.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업무의 총괄 2. 축산물유통개

지난 3월17일 정부의 개각에 따라 농림수산부 장관에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 강보성씨가 취임했다.

신임 강보성장관의 주요약력은 1930년 제주 남양주군 출생, 단국대 총학생회장, 총동문회장, 제주대학교 교수, 제11·12대 국회의원, 민한당 정책심의회 부의장, 통일민주당 정무위원, 농림수산위 간사,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민자당 간사로 현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강보성 장관

'90년 아바에이카 종계경영자세미나 개최 —한일농원, 유성관광호텔에서—



한일농원(대표 유남열)은 지난 3월17, 18일 1박2일간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90년 아바에이카 종계경영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국의 종계경영자와 관련인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첫날 △한일식품의 계열화사업 방안—차상협(한일식품 대표), △아바에이카 육용종계 사양관리 포인트—김영상(한일농원 이사)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가금질병과 대책—김선중(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강연이 있었으며, 다음 날에는 △향후 계열화 추세—유철호(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실장) △신규 축산법개정 내용—이규성(대한양계협회 총무부장) △아바에이카 전용 육용종계 사료 및 생산성 비교분석(한영균 한일사료 부장) △89년도 육용계 시장분석 및 90년도 업계전망—김지태(한일농원 부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특히 본회 이규성 부장의 축산에 관련되는 법에 대한 강의에서는 계분처리시설, 농지전용 등 업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주어 관심이 높았다. 또한 한일식품 계열화사업 방안 소개에서는 한일식품은 자체도계장을 완공하였고 유통체계를 갖출 예정이어서 병아리와 사료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열화체계 구축에 진일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차상협사장은 한일식품 계열화사업 추진방향을 계열주체와 사양가간 믿음을 높이고, 원자재인

병아리, 사료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계육의 품질을 높이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 표준설계도 작성 —양계분야 본회에서 보급 예정—

농림수산부는 양축가들이 축사를 신증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표준설계도는 우리나라의 환경 특히 기후조건과 가축생리간의 관계를 시설에 반영하여 가축의 환경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기획 추진하였다.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축사내 작업동선의 최단화, 가축의 활동공간과 사람의 작업공간을 적절히 조성 가족단위 생산성을 고려한 시설이다. 시설비의 극소화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였고, 자재구입이 용이하고 저렴한 자재확보 등의 시설투자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고려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기계화 시대를 감안하여 설계하였다.

축사표준설계도는 지난2년간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건설부 승인을 거쳐 이번에 확정 배포케 된 것이다. 본회에서는 신흥종회장과 이규성 총무부장이 참여하였고, 축협중앙회가 제작하였다.

양계분야에는 1만수 규모의 육추사, 육성사, 산란사를 설계하였다. 육추사는 236.64㎡(79.75평)으로 빠다리식 사육케이지 4단8실형으로 택하고 1열당 16조로 4열의 총64조를 설치 입주시부터 42일령까지 수용하도록 하였다. 육성사는 636.2㎡(192.45평)으로 3단3열로 케이지를 설치하여 43일령부터 112일령까지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산란계사는 789.84㎡(238.92평)으로 113일령부터 산란종료시까지 수용하도록 하였다. 산란계사의 케이지 설치방식은 3단4열로 하였으며, 경영여건에 따라 자동급이시설과 인공환풍시설을 설치하거나 인력급여와 자연환경이용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급수는 니플급수기를 이용하고 스크레퍼로 계분을 처

리하도록 하여 노동력 절감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다.

표준설계도 이용하면 ●표준설계도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규격의 과학적인 축사를 지을 수 있음 ●공사지도 및 감리업무를 허가청이 대행해 줌 ●건축비의 6%에 해당하는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음 ●전문가에 의하여 설계 및 검토됨으로 설계상의 잘못이 배제된 설계로서 이용 ●많은 농가가 이용시 규격자재 생산이 유도되어 조립자재의 이용이 대중화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본회에서는 4월 중에 축사표준설계도 중 양계분야에 관련된 육추, 육성, 산란사에 대한 부분을 제작하여 4월 중순경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축사표준설계도내역

번호	승인번호	사육규모	시설양식	시설규모
1	축사-89-20-가	한육우번식20두	루즈반	41.06평
2	축사-89-20-가	〃 비육20두	슬랏	23.59
3	축사-89-20-다	유우 20두	계류식	79.29
4	축사-89-20-라	〃 20두	후리스톨	82.34
5	축사-89-40-가	〃 40두	슬랏	129.08
6	축사-89-50-가	한육우번식50두	루즈반	84.71
7	축사-89-50-나	〃 비육50두	개방식	48.48
8	축사-89-50-다	모돈 50두기준	번식돈 (스톨)	91.43
9	축사-89-50-라	〃	분만·자돈 (케이지)	131.50
10	축사-89-50-마	〃	육성·비육 돈(군사돈방)	74.48
11	축사-89-50-바	〃	〃	82.32
12	축사-89-10,000-가	육추 10,000수	빠다리	89.18
13	축사-89-10,000-나	육성계10,000수	케이지	201.16
14	축사-89-10,000-다	산란계10,000수	〃	249.81

축산물위생처리법 대상지역지정 개정고시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

농림수산부는 지난 3월10일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거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 대상 지역 지정과 작업장 설치 규정 개정령을 고시했다.

고시된 개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닭과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대상 지역대상 지역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하며 지정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단위 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또는 도립공원 지역 △대단위 아파트, 공업단지 등 인구가 밀집되어 도시형태와 유사한 지역과 관광지역으로서 위생적인 계육과 오리육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이다.

또 적용대상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역 관내의 작업장 시설과 수육판매업소 등 계육과 오리육의 유통여건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 특별·직할시장과 도지사는 계육과 오리육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대상지역내의 유통과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의 지정지역 외에도 작업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고시된 개정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고시에 의거 닭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 하였다.

육용종계 수입한도량 30만수 증가
—농장별 신청순위대로 제한없이 추천—

농림수산부는 육계농가의 병아리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90년도 종계수입한도량을 확대 조정하였다.

최근 종계의 산란율 및 부화율 등 생산성 저하와 육계 수요증대로 육용병아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병아리가격이 상승하여 '90년도 육용종계의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종계수입추천계획 수량 및 요령을 변경하였다. 농림수산부의 당초계획은 원종계 14만수, 종계 20만수를 배정하였으나 수입후 6개월부터 병아리생산이 가능한 종계를 30만수 증가한 50만수

로 수입한도량을 증가시켰다. 또한 금년도 종계수입은 농장별로 배정하였으나 수입한도량의 증가로 농가별 배정을 취소하고 신청 우선순위로 수입수량 제한없이 추천하기로 하였다.

—종계 생산성 저하 조사단 구성—

또한 농림수산부는 병아리 부족이 종계의 산란율, 부화율 저하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인 종계 생산성 저하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3월말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경기와 충청지역 원종계와 종계농장을 방문하여 원인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종우회 부부동반 단합대회 예정

—회장에 이순오씨 선출—

부화인의 친목단체인 종우회(회장 이순오)는 오는 4월20, 21일 1박2일간 회원들의 친목 및 단합을 위하여 부부동반 단합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단합대회에서는 부곡온천을 경유 해금강과 한산섬의 여행도 겸해 실시하게 된다.



△이순오 회장

한편 종우회는 지난 17일 유성관광호텔에서 가진 총회에서 '90년도 종우회를 이끌어갈 회장에 이순오(죽전부화장, 본회 이사)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농축산물 수입개방보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농림수산부장관 등 23명 구성—

정부는 농수축산물 수입개방 보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농림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학계, 농수축산업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23명으로 구성된 수입개방 보완대책 특별위원회는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직접피해 조사와 개방예시품목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각종 관세 및 비관세제도 등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 및 대체작물의 개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개선, 가공산업육성 및 해외수출촉진대책을 수립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 농축수산물 수입대책 및 장기발전방향 등을 검토하여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축사 표준설계도 제작 배포

본회는 축사표준설계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농림수산부 및 축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양계관련 표준설계도(육추사·육생사·산란사)만을 별도로 제작 배포 중에 있다.

배포처 : 본회 총무부(588-7651)
각 도지부 및 분회